朝鮮后期 漢文隨筆과 明清小品文의 比較研究

-李瀼과 劉基의 作品을 中心으로-

黃賢玉*

차 례

- I. 서론
- II. 小品文의 진화 및 小品文 개념의 정의
- III. 劉基와 그의 小品文
- IV. 李瀼과 그의 한문 수필
- V. 劉基와 李瀼의 작품 비교
- VI. 결론
- VII. 참고자료

1. 서론

明清小品文을 수용하게 되면서부터 朝鮮后期 산문 영역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안대희는 小品文은 16세기 이래 문인의 관심을 끌어 지속적으로 창작되었고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기에는 전성기를 맞았다고 판단하였으며 “小品文을 창작한 대표적인 작가로는 18세기의 李用休, 李鳳煥, 朴趾源, 盧兢, 李德懋, 朴齊家, 兪晩柱, 李鈺과 19세기의 金祖淳, 南公轍, 金려, 沈魯崇, 南種鉉, 趙熙龍 등을 우선 거론할 수가 있는데, 아직 학계의 관심영역에 들어오지 않은 작가 역시 적지 않다.”¹고 하였다.

朝鮮后期의 小品文 분야에서 이용휴, 박지원, 이옥, 조희룡 등등을 비롯한 대표작가들의 작품이 널리 알려지고 또 그 작품들이 안대희, 김영진, 정민, 신경호 등 학자들에 의해 번역, 출판되면서 이에 대한 研究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최근 들어 朝鮮后期 小品文 관련 研究, 明清小品文과의 比較 研究 등 논문들이 수십편 나왔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 같다.

- 강명관, “이덕무 小品文 研究” (2002)
- 강혜선, “김려의 稗官小品文 研究” (2002)
- 구교현, “晩明과 朝鮮后期의 小品文 창작 배경 研究” (2006)
- 김군대, “李鈺의 文學理論과 作品세계의 研究” (1986)
- 김성진, “18·19세기 한일 양국의 明清小品文 수용에 대한 比較 研究” (2005)
- 김성진, “朝鮮后期 문인들의 생활상과 小品體 散文” (1998)
- 김영진, “李鈺 文學과 明清 小品” -신자료의 소개를 겸하여 (2003)
- 김풍기, “조선중기 古文의 小品文적 성향과 허균의 척독” (2001)

*復旦大學 外文學院 韓國語系

¹ 안대희(2001년), “朝鮮后期 小品文의 성행과 글쓰기 변모” 《韩国汉文学研究》 第28辑, p97.

- 안대회, “이덕무 小品文의 미학”,(2003)
 안대회, “이용휴의 小品文의 미학” (2000)
 안대회, “조서후기 小品文의 성향과 글쓰기 변모” (2001)
 이우일, “袁宏道와 朴趾源의 雜記類 小品文 比較研究” (2003)
 이종주, “明清 小品文과 북학과 산문의 세계인식과 서사양식” (1998)
 한영규, “明清과 대비한 朝鮮后期 청언小品의 특징” (2002)
 한영규, “조희룡 산문의 晩明 淸言小品 수용과 그 특징” (2001)

위의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 小品文이 가장 성행하던 시기인 명말청초 혹은 朝鮮后期의 유명한 작품들에 대한 研究이다. 小品文이 창작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16세기에서 18세기 중기까지의 작가 작품에 대한 논문은 없다시피하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주로 신역사주의 이론과 比較문학의 영향 研究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18·19세기의 小品文 성행시기보다 더 앞선 시기, 조선 영조 때의 실학의 대가인 성호 李瀾과 그의 한문 수필을 명초 朱元璋 때의 시인 劉基와 그의 寓言體 小品文과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劉基의 寓言體 산문집 《郁離子》에 수록된 <蜀賈>, <相虎>, <詭食>와 문집 《誠意伯文集》에 수록된 <賣柑者言>, 그리고 宋濂의 《宋文憲公集》에 수록된 <書鬪漁> 등 小品文과 李瀾의 문집 《星湖集》에 수록된 <瞎雞轉>, <友雞轉> 등 寓言적 색채를 띤 단편 한문수필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比較하며 작품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연관적 사고, 올바른 사고 및 현실 인식을 고찰함과 아울러 淸初小品文과 조선중기 고전수필 사이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작품들은 생동한 필치로 짧은 문장 속에 심오한 철리를 담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삶의 현실을 돌이켜 보게 하고 현실생활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작품을 분석하는 가운데서 당대 선인들의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오늘 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지혜를 부여해주고 삶의 교훈을 깨닫게 하며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11. 小品文의 진화 및 小品文 개념의 정의

‘小品文’은 ‘小品’이라고도 한다. ‘小品’이란 말은 최초 佛學에서 온 것으로 남북조시기에 나타났는바 佛經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다. 南朝宋時에 劉義慶이 편찬한 《世說新語·文學》第43篇에는 “殷中軍讀《小品》，下二百籤，皆是精微，事之幽滯。嘗欲與支道林辯之，竟不得。今《小品》猶存。”²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南朝梁時에 劉孝標는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다. “《釋氏辯空經》，有祥者焉，有略者焉，祥者為《大品》，略者為《小品》。” 東晉後秦 때 著名한 佛經翻譯家인 鳩摩羅什가 번역한 《摩訶般若波羅蜜經》은 두 가지 판본이 있는데 10권으로 된 것은 “小品般若經”이라 하고 27권으로 된 것은 “大品般若經”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 “小品”의 최초의 뜻은 불가경전용어로 “大品”을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小品”과 “大品”은 편폭에서 길고 짧음의 구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 자기의 특징이 있다. 小品불경은 편폭이 짧아 더 이해하기 쉽고 또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 외우기 편리한 까닭에 예로부터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

² 劉義慶著《世說新語》(南朝宋)，華夏出版社，2000年，pp121~122

“小品”이란 용어가 문학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명대중엽이다. 嘉靖33년(1554년)에 田藝蘅이 잡저 《煮泉小品》을 편찬하였는데 주로 역대의 차와 물 관련 시문들을 수록하였다. 書名을 “小品”이라고 지었지만 내용에는 적지 않은 詩歌가 들어있다. 즉 “小品”이라지만 실은 “감상”, “음미”의 뜻을 지녔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小品”은 단지 동사로만 쓰이었다.

명대중엽후부터 “小品”이란 단어가 대량으로 작품속에 등장하였으며 그 뜻도 아주 풍부하였다. 1611년에 王納諫은 蘇軾의 글에서 편폭이 짧고 내용이 참신한 글들을 수집하여 《蘇長公小品》을 편찬함으로써 최초로 “小品”이란 개념을 문학에 접목시켰다. 그 후 부터 “小品”으로 작품집을 명명한 작가들이 점점 많아졌다.³

중국現代漢語에서 최초로 “小品文”명칭을 사용한 것은 民國初期로서 편폭이 比較적 짧은 서정산문을 小品文이라 정의를 내렸다. 1932년 9월에 林語堂은 《論語》半月刊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가장 먼저 小品文만 전문 게재하는 잡지였다.

小品文에 관한 정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20세기 30년대의 小品文붐은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아울러 그에 대한 研究도 시작되었다. 따라서 小品文정의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도 나왔다. 대표적인 견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출처	정의
魯迅	雜談小品文	도리를 설명하는 글이거나 혹은 도리를 설명하는 것은 않았지만 편폭이 길지 않은 글이어야 小品이라고 할 수 있다.
夏衍	談小品文	小品文은 유머재질과 문예소양을 갖춘 전투적인 사회논문이라고 하였다.
錢歌川	我們所要讀的小品文	小品文은 우리의 사회를 부각하고 생활을 묘사하고 현실을 반영하고 장래를 암시하는 동정도 있고 비판도 있는 글이다.
王力	談談小品文	小品文은 편폭이 짧고 형식이 활발하며 내용이 다양한 일종 잡문이다.
小默	小品文的一種看法	小品文은 문학에서의 간편한 형식이다.
傅德岷	小品·隨筆	小品文은 逸話들을 수집하여 기록하고 世風民俗을 묘사한 諷喻적 글이다.

위의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서 보다시피 小品文의 정의에 대해 똑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비슷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그 치중점이 각자 다르다. 魯迅, 夏衍, 錢歌川, 王力 등은 서술도 있고 논의도 있는 雜感수필에 치중하였고 小默은 여러 가지 체제를 다 포용할 수 있는 문학산문에 치우쳤으며 傅德岷은 서정산문 혹은 스케치류 서사산문에 무게를 두었다. 비록 이렇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측면에서 그 당시 小品文의 기본적 함의에 대해 밝혔다.

³ 歐明俊, <明清小品概說>, 《文學遺產》1999年第5期
 “萬曆三十九年(1611),王納諫編成《蘇長公小品》,最早將‘小品’概念移植到文學中。此後以‘小品’名集者漸多。”

여기에서 말하는 “小品文”은 형식적으로 생동하고 내용적으로 다양하며 편폭이 짧고 잡감이 잘 담긴 글로서 서술과 논의를 결부하여 생동감 넘치는 표달 방식으로 어떤 이치를 논술하거나 어떤 사건을 서술하며 유머감과 풍자력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정의는 고대 小品文에 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中国大百科全书》에서는 산문의 일종으로 짧고 영활하며 간결하고 세련되었으며 뜻이 심오하며 이론, 서정, 서사 등 기능을 다 결부시켜 즉흥적으로 소소한 느낌이나 단편적인 견문을 표현하는 자유자재의 문학형식으로 중국에서는 明清시기에 성행하였다고 정의를 내렸다.

《现代汉语词典》에서는 산문의 일종으로 편폭이 짧고 형식이 생동하며 내용이 다양한 글이라고 하였다.

《辞海·现代汉语》에서는 짧은 편폭에 생동활발한 필치로 도리를 설명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글이라고 하였다.

상술한 정의는 내용, 형식, 특징 등 면에 입각하여 정의를 내렸지만 전면적이 못 되며 마찬가지로 고대 小品文에 적용되지 않는다.

胡根红은 小品文이란 편폭이 짧고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독자들의 공명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감칠맛 나는 문학작품을 말한다고 하였다.⁴

조선시기의 “소품”이란 명칭은 朴趾源의 《燕巖集》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⁵ 조선후기 소품문의 정의에 대해 이성혜는 書·記·跋·銘·碑誌·尺牘 등의 전통양식에 소품체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전통 한옥에 실내를 입식의 서양식 구조로 바꾼 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집은 보는 자의 시각에 따라 한옥일 수도 양옥일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의 소품문 또한 외형적으로는 고문과 소품문을 구별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성혜는 소품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⁶ 첫째, 제목이 자유롭다. 둘째, 문장이 단문이다. 셋째, 구어와 비속어를 사용한다. 넷째,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찾는다. 다섯째, 말의 재미를 찾는다. 여섯째, 뒤집기 방법을 쓴다. 일곱째, 해학적이고 우언적이다. 이러한 특징은 만명 소품문의 특징과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조선 후기의 소품문은 중국산문사의 한 영역으로 다루어지지 않나 생각한다.

诸伟奇는 《明清小品文解读》서언에서 “小品文은 산문의 한 종류로 서술이 자유롭고 편폭이 짧은 특징이 있다.”⁷고 하였다.

III. 劉基와 그의 小品文

劉基(1311~1375字는 伯溫)는 원말명초의 군사가, 정치가, 시인으로 經史, 천문, 기상, 歷法, 병법 등 분야에 정통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그를 劉文成, 文成公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원조 말기에 진사로 되었으나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가서 은거생활을 하였다. 朱元璋의 謨士가 되어 명나라를 세우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 건국 후에는 御史中丞과 太師 등의 관직을 맡아 역법(曆法) 제정과 군정체제 건립에 공헌하였

⁴ 胡根红, “中国古代小品文研究”, 陕西师范大学, 2008年.

⁵ 具教賢, “晚明과 朝鮮后期の 小品文 創作背景 研究” <中國語文學論集>(제39호), p247

⁶ 具教賢, “晚明과 朝鮮后期の 小品文 創作背景 研究” <中國語文學論集>(제39호), p249

⁷ “小品文, 为散文品种之一.” 诸伟奇, 《明清小品文解读》, 黄山书社, 2002年.

으며 나라의 안정을 지키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였다. 이로 하여 그는 제갈량에 견줄만큼 천하에 이름을 떨쳤다. 劉基는 중국 문학사에서 宋濂, 高啓와 더불어 명초의 문단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작가로 “明初詩文三大家”라고 불리었다. 劉基는 시어는 물론 산문에도 뛰어나 재주를 가지고 있다. 그는 원나라 말기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과 부조리를 풍자한 글을 많이 썼다. 그는 47~50세 때 원나라에서 관직에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였고 병권도 박탈당하였다. 자신의 포부를 펼칠 길이 없게 되자 단연히 관직을 버리고 고향 靑田 산속에 들어가 산문집 《郁離子》 펴내는데 몰두하였다. 문집이 나온지 얼마 안 되어 다시 고향을 떠나 주원장의 모사가 되었다. 그의 寓言體 散文集 《郁離子》에 수록된 <蜀賈>, <詬食> 등 작품들은 현재 많은 명칭 소품문집 관련 책자들에 재수록되어 있다. <賣柑者言>는 그의 문집 《誠意伯文集》에 수록된 작품으로 명칭소품문집에서 宋濂의 <書鬪魚> 다음으로 소개되는 대표작이다.

<賣柑者言>는 사물에 의거하여 이치를 유출하는 우언체 소품문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⁸

항주에 과일 파는 장수가 있는데 껍을 아주 잘 저장하여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이 지나도 껍이 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광택이 나고 금빛찬란하였다. 시장에 내다가 파는데 가격이 열배나 비싸도 사람들이 다투어 사갔다. 나도 한 개를 사서 갈라 보았더니 뿌연 먼지가 입과 코를 찌르는 듯 했다. 속을 보니 마른 품이 마치 흰 솜과도 같았다. 내가 이상하게 여겨 그에게 당신이 파는 껍은 사람들이 변두에 담아 제삿상에 받쳐 올리고 또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겠소? 그런데 어찌하여 걸만 번지르르하게 보기 좋게 만들어 아둔하고 물건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인가? 이런 속임수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 과일장수는 말하기를 “제가 이 장사를 한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껍을 팔고 사람들이 껍을 사가지만 누구 하나 뭐라고 불평을 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당신만이 불만이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어찌 저 한 사람 뿐이겠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잘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호부를 차고 범가죽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위풍당당하여 마치 나라를 지키는 인재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과

⁸ 杭有賣果者，善藏柑，涉寒暑不潰。出之燁然，玉質而金色。置於市，賈十倍，人爭鬻之。予買得其一，剖之，如有煙撲鼻口，視其中，則幹若敗絮。予怪而問之曰：“若所市於人者，將以實籩豆奉祭祀，供賓客乎？將炫外以惑愚瞽乎？甚矣哉，為欺也！”賣者笑曰：“吾業是有年矣，吾賴是以食吾軀。吾售之，人取之，未嘗有言，而獨不足子所乎？世之為欺者不寡矣，而獨我也乎？吾子未之思也。今夫佩虎符，坐皋比者，洸洸乎幹城之具也，果能授孫吳之略耶？峨大冠，拖長紳者，昂昂乎廟堂之器也，果能建伊臯之業耶？盜起而不知禦，民困而不知救，吏奸而不知禁，法舉文而不知理，坐糜廩粟而不知恥。觀其坐高堂，騎大馬，醉醇醴而飫肥鮮者，孰不巍巍乎可畏，赫赫乎可象也？又何往而不金玉其外，敗絮其中也哉！今子是之不察，而以察吾柑！”

予默默無以應。退而思其言，類東方生滑稽之流，豈其憤世嫉邪者耶？而托於柑以諷耶？

-- 《古文观止译注》中的《诚意伯文》

연 손무, 오기와 같은 계략이 있겠습니까? 높은 관을 쓰고 긴 띠를 두른 사람들이 득의 양양하여 높은 자리에 앉은 결책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과연 伊尹, 皋陶와 같은 업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도적이 날쳐도 막을 줄을 모르고 백성이 곤경에 빠져도 구할 줄 모르며 관리들이 간악해도 제재할 줄 모르고 법규가 물러도 바로잡을 줄 모르며 또 가만이 앉아서 나라 곡식만 축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들이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말을 타며 좋은 술을 마시고 고기와 생선으로 만포식하는 것을 보면 어느 누가 그 위풍이 당당한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명성이 높은 것을 본받으려 하지 아니 하겠습니까? 그들이 언제 걸은 금옥 같으나 속은 현 솜 같은 적이 아닌 때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당신은 이러한 것은 살피지 않고 제가 파는 굴만 나무라고 있습니다.”

나는 묵묵히 대답도 못하고 물러나와 그의 말을 되새겨보았다. 그의 해학과 풍자는 동방삭과 비슷하다고 여겼다. 그도 세상의 간사하고 속된 사람이 미워서 굴을 빌어 세상을 풍자하는 것은 아닐까?

劉基의 이 글은 산문이나 자연스럽게 소품문에 분류시키기도 한다. 예전의 고대산문에 비해 이해하기가 더 쉽고 짜임새가 도뚝하며 400자도 안 되는 짧은 편폭에 심오한 뜻을 담았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은 일 즉 굴을 팔고 사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묘사한 다음 작가인 “나” 개입해서 속임수를 써서야 되겠는가고 질책하는 것으로 문제를 이끌어내며 이어서 일문일답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다가 자연스럽게 문장의 주제가 되는 주인공의 말을 꼬집에 낸다. 작가 자신이 아닌 굴장수의 입을 빌어 당시 사회현실을 반영하였으며 정사를 돌보지 않고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앉아서 봉록만 받아먹는 문무대신들을 풍자하였으며 원말통치자들의 부패상을 걸은 금옥 같이 화려하나 속은 부패해서 현 솜과 같이 되어 버린 굴에 비유하여 실랄하게 비판하였다.

표현기법에서는 먼데로부터 가까이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한단계 한단계 들어감으로서 설복력 있게 서술하였다.

〈蜀賈〉는 寓言體散文集《鬱離子》에 수록된 소품문이다. 촉나라의 세 약장수가 서로 다른 경영이념으로 서로 다른 경영결과를 얻게 된 사실을 서술하였다.⁹

사천에 사는 상인 3명이 있었는데 모두 시장에서 약을 팔았다. 그 중 한 사람은 전문 질이 좋은 약을 구입해다가 팔았는데 매입 가격에 따라 매출 가격을 정하였으며 과분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다른 한 사람은 질이 좋고 나뭇을 가리지 않고 모두 가져다가 팔았는데 질이 좋은 약이든 질이 나쁜 약이든 판매가격은 구매자의 수요에 따라 정하였다. 나머지 한 사람은 질이 좋은 약을 들여오지 않고 그냥 그 양만 추구하였으며 가격도 싸게 하였다. 누가 더 달라면 더 쥐어 주면서 옴니암니 따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서로 다투어 그 가게에 가서 약을 샀는데 문턱이 다 닳

⁹ 蜀賈三人，皆賣藥於市。其一人專取良，計入以為出，不虛價亦不過取贏。一人良不良皆取焉，其價之賤貴，惟買者之欲，而隨以其良不良應之。一人不取良，惟其多賣，則賤其價，請益則益之不較，於是爭趨之，其門之限月一易，歲余而大富。其兼取者趨稍緩，再期亦富。其專取良者，肆日中如宵，旦食而昏不足。鬱離子見而歎曰：“今之為士者亦若是夫！昔楚鄧三縣之尹三，其一廉而不獲于上官，其支也無以僦舟，人皆笑以為癡。其一擇可而取之，人不尤其取而稱其能賢。其一無所不取以交于上官，子吏卒，而實富民，則不待三年，舉而任諸綱紀之司，雖百姓亦稱其善，不亦怪哉！” — 《鬱離子》卷二

아 한달에 한 번씩 새로 갈아야 하였다. 그리하여 1년 후 부자가 되었다. 질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파는 장수한테 약 사러 가는 사람이 좀 적기는 해도 2년이 지나자 역시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질 좋은 약만 들여온 상인의 가게는 한낮인데도 밤처럼 조용하였다. 그러니 아침밥을 먹고 나면 저녁밥이 모자라는 형편이었다. 옥리자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당시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옛날에 초나라 변두리에 있는 3개 현에 3명의 현령이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은 청렴하였으나 상사의 발탁을 받지 못하였다. 그는 이임하여 돌아갈 때 배를 탈 돈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비웃었다. 다른 한 사람은 취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마다하지 않고 얻었다. 사람들은 그를 나무라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를 현명하다고 칭찬하였다. 다른 한 사람은 천방백계로 이득을 얻었으며 그 얻은 것을 상급관리에게 상납하였다. 또 부하직에 있는 관리들을 아들 대하듯 하였고 부자들을 귀빈 대하듯 하였다. 3년도 채 안 가서 승진하여 사회의 질서와 국가의 법기를 관장하는 직무를 맡게 되었다. 백성들까지도 그를 착한다고 칭찬하니 어찌 괴이하지 않겠는가!

劉基는 사천에 있는 세 약장수의 서로 다른 경영방식과 서로 다른 경영결과를 서술한 다음 郁離子(작자 본인)를 개입시켜 탄식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와 비슷한 초나라 세 현령의 이야기를 꼬집어 내어 그들의 부동한 처세술을 서술하였다. 청렴하고 정직한 관리일수록 곤궁에 빠지고 교활하고 간사한 관리일 수록 쾌적한 나날을 보내는 원대 말엽의 암흑상을 적절한 비유, 선명한 대비, 그리고 예리한 필치로 풍자 비판하였으며 한 편으로 그 당시 비슷한 처지에 처한 자신의 울분도 토로하였다.<詬食>도 寓言體 散文集《郁離子》에 수록된 소품문이다.¹⁰

제나라에 밥을 먹으면서 욕지거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식사때마다 자기 하인을 욕하며 심지어는 그릇을 깨뜨리고 수저도 마구 내동댕이친다. 하루도 그러지 않는 날이 없다. 식당 주인은 그러는 그가 싫었지만 참고 말하지 않다가 그가 떠날 때 개 한 마리를 주면서 “이 개는 짐승도 잡을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받아주십시오.”라고말하였다. 제나라 사람은 20리를 걸어가다가 한 식당에 들어갔다. 밥을 먹을 때 그는 개를 불러다가 상밑에다 먹이를 주었다. 개는 한창 짚은 다음 먹기 시작하였으며 먹으면서도 가끔 짚었다. 주인은 밥상에서 욕지거리를 하고 개는 상밑에서 짚었다. 그 후에도 밥을 먹을 때마다 이러기를 계속하였다. 어느 날 그의 하인은 참지 못하고 웃어버렸다. 제나라 사람은 그제야 자기가 조롱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옥리자가 말하기를: “ ‘사람이 제 아니 자중하면 남의 조롱을 받는다’는 말이 있고 또 ‘먹고 마시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남의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말이 있다. 이런 말들은 아마도 이 제나라 사람과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밥을 먹을 때마다 욕지거리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 남들의 조롱을 받게

¹⁰ 齊人有好詬食者，每食必詬其僕，至壞器投匕箸，無空日。館人厭之，忍弗言，將行，贈之以狗，曰：“是能逐禽，不腆以贈子。”行二十裏而食，食而召狗與之食。狗嗥而後食，且食而且嗥。主人詬于上，而狗嗥於下，每食必如之。一日，其僕失笑，然後覺。

鬱離子曰：“夫人必自侮，而後人侮之。”又曰：“飲食之人，則人賤之。”斯人之謂矣。

--《鬱離子》卷七

되는 사실을 통하여 스스로 자신은 존중할 줄 알아야만이 남의 존중을 받을 수 있으며 인권을 존중하지 하고 남을 능욕하는 사람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도리를 깨우쳐주었다.

원말명초의 문학가로 劉基와 함께 명초시문의 삼대가로 불리고 특히 傳記文과 記敍文에 뛰어난 재질을 가지고 있는 宋濂의 소품문 <書鬪漁>는 명초 우화체 소품문에서는 효시라 할 정도로 맨 앞자리를 차지한다. 최근 년래 중국에서 출간된 明清小品文集 관련 저서를 보면 거개가 宋濂의 이 작품이 반드시 먼저 등장한다.

<書鬪漁>¹¹는 우선 싸움물고기의 체형특징과 사육방법을 서술한 후 물고기가 싸우는 장면을 마치 동영상을 보는듯 아주 생동하게 묘사하였다. 다음은 글 끝머리에서 물고기의 싸움을 구경하면서 떠오른 작자의 느낌을 적었다. 작품은 물고기가 서로 싸우는 것을 묘사함으로써 그 당시 일부 사람들이 명리를 위하여 아귀다툼을 하며 심지어는 서로 참혹하게 살해하는 암흑하고 부패한 사회현상을 풍자하였다.

IV. 李灝과 그의 한문 수필

李灝(1681~1763)은 조선조 21대 왕 영조 때의 학자로 자는 子新, 호는 星湖이다. 李珥, 柳馨遠의 학풍을 이어서 실학의 대가가 되었으며 천문, 지리, 의약, 율산, 경사에 통달하였으며 이 면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는 학문 연구에 뜻을 두고 저술과 후진 양성에 전력하였다. 그의 문집으로는 《星湖僿說》, 《藿憂錄》, 《星湖文集》 등이 있다.

<瞎雞傳>과 <友雞傳>은 모두 《星湖文集》에 수록된 작품으로 닭에 대한 흥미 있는 이야기로 독자들의 주목을 끌고 생동한 묘사로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다.

<瞎雞傳>은 제목 그대로 눈이 먼 닭에 대한 이야기이다.¹² 그 이야기 줄

¹¹ 予客建業，見有畜波斯魚者，俗說為師婆魚。其大如指，鬚鬣具五采。兩腮有大點如黛，性矯悍善鬥。人以二缶畜之，折藕葉覆水面，飼以蚓蠅，魚吐泡葉畔，知其勇可用。乃貯水大缶，合之。各揚鬚鬣，相鼓視，怒氣所乘，體拳曲如弓，鱗甲變黑。久之，忽作秋隼擊水，泠然鳴。濺珠上人衣。連數合，復分。當合，如矢激弦，絕不可遏。已而相糾纏，盤旋弗解。其一或負，勝者奮威逐之。負者懼，自擲缶外，視其身純白雲。

予聞：有血氣者，必有爭心。然則斯魚者，其亦有爭心歟？抑冥頑不靈而至於是歟？哀哉！然予所哀者，豈獨魚也歟？

¹² 有伏雌在窠而瞎。右睛全翳。左通微睇。穀不滿器，不能啄。行觸垣牆。彷徨以回避。皆曰是不可以有乳矣。及日滿雛成。將奪而與佗。又憐不忍也。既而視之。無佗技能。常不離於階庭之際。而雛便茁壯長焉。觀佗乳者舉不免摧殘損失。或不能半存。而此獨有完巢之功何哉。凡世所謂善乳者有二。善求食也。善防患也。求食尚健。防患尚猛。雛既出殼。母能撥土揀蟄。嘴爪為之磨鈍。規規四出。時無安息矣。仰察烏鳶。傍侍貓犬。厲吻鼓翅。拼棄死命。誠若快利得其路。然奔走林莽。及時呼引。而雛也啼號跟隨。力則竭。體則病。或至於違失而水火是蹈。患殃猝逼。此求食無益也。其慎獲禦門。猛若烈火。然患已去而雛亦為之六七分摧敗。既又遠出。人亦失護。鷙物之勇。有以勝之。此防患無益也。彼瞎者一皆反之。行不能遠。故依之近人。目不能察。故常懷畏懼。動息徐徐。抱覆頻頻。不見用力之跡。雛自啄拾而成矣。夫養雛若烹小鮮。唯忌攪亂。彼非智有以及之。而適中方便。畢竟萬全者。在此不在彼。始知物之養成。不但在於哺穀之恩。即帥之有術。而各遂其生。其要在善禦而不忘而已也。餘於是因養雞而得養人之道。

거리를 간추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는 암탉이 있었는데 눈이 먼 닭이었다. 바른편 눈은 완전히 덮혔고 왼쪽 눈도 거의 실눈이 되어 있었다. 모이가 그릇에 가득하지 않으면 쪼아 먹지를 못하고 다니다가 담장에라도 부딪히면 헤매다가 피해나온다. 이에 모두들 새끼를 기르지 못한다고 하였다.

마침내 날짜가 차서 그 눈먼 닭이 품고 있던 알에서 병아리가 나왔다. 이를 빼앗아서 다른 어미닭에게 주려 하였으나 한편으로 측은하기도 하여 차마 그러지 못하였다. 얼마 후 살펴보니, 별다른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항상 뜨락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어서 병아리들은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었다. 다른 어미닭들의 병아리를 보면 대개가 병들고 상처 받아 죽거나 잃어버려 반도 제대로 못 기르는데 유독 이 닭은 모든 병아리들을 온전히 길러내다니 어찌된 일일까? 무릇 새끼를 잘 길러냈다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즉 먹이를 잘 얻는 것과 환난을 막기 위한 용맹스러움이다.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면 어미닭은 흠을 뚜져 벌레를 찾아내느라 부리와 발톱이 다 닳아 빠지며 사방으로 흩어지는 새끼들을 불러 모으느라 잠 시도 편이 쉴 새가 없다. 또 위로는 까마귀와 솔개, 주위로는 고양이와 개들을 살피며 부리를 세우고 깃을 퍼덕이며 목숨을 내걸고 항거한다. 그리고는 숲속으로 뛰어가서 때맞게 불려서 몰고 오는데 병아리들은 빼약거리며 간신히 뒤따라오기는 하지만 힘이 빠지고 병들기 십상이다. 때로는 엇갈리어 길을 잃기도 하거나 물이나 불 속에 빠지게 되면 생사를 기약할 수 없으니, 이렇게 되면 먹이를 구해준 것도 허사로 돌아간다……병아리 열마리중에 보통 예닐곱 마리는 잃고 만다….그런데 눈먼 닭은 이와 반대이다. 멀리 갈 수 없으므로 사람 가까이에서 맴돌고, 눈으로 살필 수 없으니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행동을 조심조심하여 노상 끌어안고 감싸준다. 그러므로 힘쓰는 흔적은 보이지 않아도 병아리들은 저들끼리 알아서 먹이를 쪼아 먹고 자라난다.

사물을 양성하는 방도는 한갓 젓 먹이는 은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이제야 알겠다. 통솔하되 제각기 제 삶을 이루도록 해야 하니, 그 요령은 오직 잘 인솔하여 잃어버리지 않는 것뿐이다. 나는 이 병아리 기르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양육하는 도리를 깨달았다.¹³

이 작품은 눈먼 어미닭이 신체적 여건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정성을 다하여 기타 성한 어미닭보다 더 훌륭하게 병아리를 길러낸 이야기를 썼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제대로 길러낼 수 없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고 병아리를 한 마리도 잃지 않고 길러낸 눈먼 암탉의 이야기로 부터 사람을 양육하는 도리를 깨달았다고 작자는 말하였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가 음미해볼만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자녀를 키우고 교양할 때 물질적 지원보다는 정신적이 지원이 더 중요하다. 항상 자녀와 함께 가까이 있으면서 시간을 할애하여 자녀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며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녀가 심신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어야

¹³ 이상익·노진한·모팔원, 《고전수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집문당, 1999년, pp37-38. 참조.

한다. 이 수필은 지나친 과잉보호나 양육보다는 언제나 가까이 있으면서 세심하게 돌봐주면서도 또 스스로 알아서 제각기 자랄 수 있도록 기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友雞傳>은 닭의 우애를 묘사한 글이다. ¹⁴ [略]

V. 劉基와 李瀼의 작품 비교

	작품명	인물 혹은 사물	비유되는 인물 혹은 사물	대비	주제
劉基	賣柑者言	귤	문무대신	겉과 속	원말관리들의 범속하고 무능함을 풍자
	蜀賈	약장수, 현령	관리	세 약장수와 세 현령	청렴하고 성실한 자는 곤궁하고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은 잘 사는 원말의 암흑상을 폭로, 비판함
	話食	육쟁이	자중할 줄 모르는 사람	제나라 사람과 개	자중할 줄 알아야 남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도리를 깨우침
宋濂	書鬪魚	물고기	아귀다툼하는 사람	물고기와 물고기	명리를 위하여 아귀다툼을 하며 심지어는 서로 참혹하게 살해하는 암흑한 사회현상을 풍자함.
李瀼	瞎雞傳	눈먼 닭	부모	눈먼 닭과 성한 닭	자녀를 양육하는 도리를 깨우쳐줌
	友雞傳	우계	친구	성인	참된 우애의 의미를 보여줌과 아울러 각박한 인정세대를 간접적으로 비판함

VI. 결론

¹⁴余畜一母雞。性甚慈。雛成而再乳。并哺其大者。大者纔翼。小者尚毳。一日夜母雞爲野獸所食。雛大者亦爲其所攫。而一雌偶逃。頭肩毛脫。病不能啄。羣雛啼號。求母甚憐。而一雌病少間。卽爲之引抱。家人始以爲偶然。既而得食必呼。行作粥粥聲。不離庭階。或張翮防患。偶有相失。遑遑尋求。飛蹕若狂。小大相慈愛。恰恰然一似其母也。又避害近人而宿於露檐。時大霖雨數月。卻以兩翼覆雛。俾免霑濕。而體眇小脚不能屈。正立達夜。閱夏秋一如也。見者爲之感歎。命之曰友雞。凡人有不善。輒相戒曰視雞視雞。而無不媿屈。故雖啄困粟不忍驅。其孚信於人如此也。至雛長大於拳。而一雌尙在穉弱。猶哺覆不衰。身則病矣。人益憐其暴露勤劬之崇。殊不覺野獸之又陰伺矣。竟昏夜而失之。家人追不獲。惟有摧翎落羽散在山逕間。余適自外還聞之。幾於隕淚。或慮其殘骸有遺者。遍索不得。乃收拾羽毛爲棺而葬之山。指以爲友雞塚。嗚乎。古今言物有一路之通。如烏之爲子。蜂之爲臣。其最著也。然蜂自是離羣不得。利害與共。而烏亦報穀育之恩。至於友道。絕千古不存。友也者。推父母及于兄弟。人而或鮮。況于物乎。夫人之爲善。或先覺導掖。或習俗觀效。又或有好名修飾。而其心有未可知者。今此物孰敦而孰學之哉。又孰爲而外假爲哉。人之制行。本有長少之分。故周知博行。不可責之童幼。又或不免有始終之差。今此物未離雛健。首尾無惰。何其異且奇哉。吾聞生知爲聖。是其物之聖者歟。踐形爲聖。禽而人行。是不囿於質者歟。功成而身陷。不見報施。其理之旣通而值數之局者歟。人有不殤。物亦有相類者。葬諸行路之傍。要往來之觀焉。

李瀼의 작품 <瞎雞轉>, <友雞轉>은 수필이라지만 劉基의 우언적 소품문 <賣柑者言>, <蜀賈>, <詬食>과 宋濂의 우언체 소품문 <書鬪魚>와 유사한 데가 많다.

작품들은 모두가 우언적 색채가 짙으며 유추적인 사고방식으로 교훈적인 것을 깨우쳐주거나 부패한 사회현실을 폭로 비판하였으며 작품에 작자의 정서를 표출시켰다. 李瀼은 당시 명나라에서 들어온 천여권의 책을 탐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을 통하여 들어온 서양의 과학 기술에 관한 책과 세계지도와 지리에 관한 것 천주교에 대한 교리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공부했다. “명초시문삼대가 (明初詩文三大家)”로 불리는 宋濂, 劉基 등의 산문창작의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짐작이 간다.

宋濂, 劉基의 소품문은 모두가 당시 부패한 관리들과 암흑한 사회상을 풍자적 수법으로 폭로하고 비판하였으며 당시 사회에 대한 작자의 불만과 울분을 토로하였다. 李瀼의 수필도 비판하는 태도가 보이지만 사회에 대한 비판보다는 인정세태에 대한 비판이다. 그의 수필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처한 사회적 지위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劉基가 《郁離子》를 창작할 때는 원나라 말엽으로 그가 관직에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였고 병권도 박탈당하여 자신의 포부를 펼칠 길이 없게 되자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있을 때였다.

[略]

참고자료

- 강명관, “이덕무 小品文 研究” 《고전문학연구》 제22집, (2002)
- 강혜선, “김려의 稗官小品文 研究”,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 집문당, (1998)
- 구교현, “晩明과 朝鮮后期의 小品文 창작배경 研究”, 《中国语文学论集》 (第39号), (2006),
- 김군태, “李鈺의 文學理論과 作品世界の 研究”, 創學社, (1986)
- 김성진, “18·19세기 한일 양국의 明清小品文 수용에 대한 比較 研究”, 《한국문학논총》 (제41집), (2005)
- 김성진, “朝鮮后期 문인들의 생활상과 小品體 散文”, 《한국 고문의 이론과 전개》, 태학사, (1998)
- 김영진, “李鈺 文學과 明清 小品” -신자료의 소개를 겸하여, (2003)
- 김풍기, “조선중기 古文의 小品文적 성향과 허균의 척독”, 고려대《민족문화연구》 35호, (2001)
- 안대회, “이덕무 小品文의 미학”, 《고전문학연구》 제24집, (2003)
- 안대회, “이용휴의 小品文의 미학”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체》, 태학사, (2000)
- 안대회, “조서후기 小品文의 성향과 글쓰기 변모”, 《한국한문학연구》 28집, 한국한문학회, (2001)
- 안대회,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체》 (태학총서 12), 태학사, (2003).
- 이상익·노진한·모팔원, 《고전수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집문당, (1999)
- 이우일, “袁宏道와 朴趾源의 雜記類 小品文 比較研究”, 《한문고전연구》 제7집, (2003)
- 이종주, “明清 小品文과 북학과 산문의 세계인식과 서사양식”, 《한국 고문의 이론과 전개》, 태학사, (1998)
- 한영규, “明清과 대비한 朝鮮后期 清言小品의 특징”, 《고전문학연구》 제21집, 한구곡전문학회, (2002)
- 한영규, “趙熙龍 산문의 晩明 清言小品 수용과 그 특징”, 《漢文學報》 제4집, (2001)
- 胡根红, “中国古代小品文研究”, 陕西师范大学, (2008)
- 李浩·张志江, 《小品》, 中国社会出版社, (2008)
- 劉義慶, 《事說新語》 (南朝·宋), 華夏出版社, (2000)
- 呂立汉《劉基考论》, 中州古籍出版社, (2000)
- 欧明俊, “明清小品概说”, 《文学遗产》 1999年 第5期
- 欧明俊, 《明清名家小品精华》, 安徽文艺出版社, (2007)
- 魏建遜·萧善芴, 《郁离子》, 上海古籍出版社, (1981)
- 诸伟奇, 《明清小品文解读》, 黄山书社, (2002)

【中文摘要】

朝鮮後期在散文領域出現了劃時代的變化。可以說接受明清小品文之後的18世紀末至19世紀初是小品文的鼎盛期。李用休, 樸趾源, 李德懋, 樸齊家, 李鈺, 金鑪, 趙熙龍等人可以稱得上小品文創作的代表作家。他們的小品文被安大會, 金永振, 鄭璿等學者翻譯、出版之後, 對小品文的研究也開始活躍起來。儘管如此, 小品文的研究大都是針對明末清初或朝鮮後期的作品進行了研究。有關小品文創作初期的作家和作品的研究論文幾乎一篇都沒有。本文綜合運用新歷史主義理論與比較文學的影響研究, 對朝鮮中後期實學家李瀼及其散文作品與元末明初詩人劉基及其寓言體小品文進行比較研究。通過比較研究指出其共同點和不同點。闡述清朝初期的小品文和朝鮮中期漢文散文之間的影响關係。並以類推的思考方式考察現實生活。

劉基和李瀼都在短短的篇章裏蘊藏了深奧的哲理, 引起人們的共鳴。它使讀者回顧走過來的人生歷程展望和策劃未來的人生道路。在分析作品的過程中不難看出當時先人們對生活的態度。希望它賦予我們生活的智慧, 讓我們現代人懂得與自然協調, 走向和諧社會。

關鍵詞： 朝鮮中期 漢文短篇隨筆, 明清小品文, 李瀼, 劉基, 比較, 影響關係